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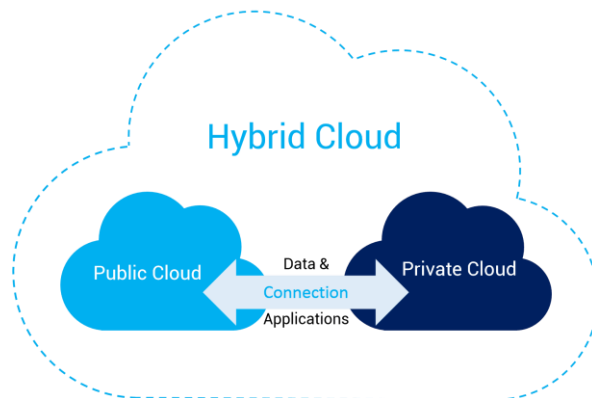
## 경제신문 스크랩 양식

헤드라인	디지털 전환 빈틈 노린 해킹 늘어난다
기사링크	<a href="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newspaper/015/0004464428?date=20201210">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newspaper/015/0004464428?date=20201210</a>
본문 (본문 내용 복사)	<p>[ ✓ 제조 시설, 병원, 클라우드 서버 SK인포섹 "내년 더 위험" ]</p> <p>이랜드그룹, KAIST 등 기업과 공공기관의 해킹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내년에는 제조시설과 의료기관, 클라우드 서버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.</p> <p>SK인포섹은 9일 발표한 '2021년 사이버 위협 전망 보고서'에서 △제조 분야 산업제어시스템을 노린 공격 △방어 체계를 우회하는 랜섬웨어 공격 △헬스케어 기업 및 병원을 상대로 한 공격 △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△비대면 환경을 악용한 보안 위협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.</p> <p>SK인포섹에 따르면 올해 제조 분야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는 전체 사고의 16.8%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.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네트워크와 제조시설을 연결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공격은 더 많아질 것이란 분석이다.</p> <p>SK인포섹은 최근 이랜드그룹 등이 피해를 본 랜섬웨어 공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. 김태형 SK인포섹 EQST 담당은 "랜섬웨어 공격자들이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공격 사례를 모방하거나 조직을 꾸려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"고 설명했다.</p> <p>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협업이 늘어난 병원도 해커의 '먹잇감'이 될 수 있다. 최근 환자의 건강정보가 다크웹상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공격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.</p>
정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조시설과 의료기관, 클라우드 서버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란 전망</li> <li>✓ 제조 분야 산업제어시스템을 노린 공격</li> <li>✓ 방어 체계를 우회하는 랜섬웨어 공격</li> <li>✓ 헬스케어 기업 및 병원을 상대로 한 공격</li> <li>✓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</li> <li>✓ 비대면 환경을 악용한 보안 위협</li> </ul>
추가 조사할 내용 또는 결과	<p>[ Cloud의 종류 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Public Cloud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컴퓨팅 성능을 필요에 따라 늘리거나 줄여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공유 인프라</li> </ul> </li> <li>2. Private Cloud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조직의 방화벽 뒤에 격리되어 물리적 리소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인프라</li> </ul> </li> <li>3. Hybrid Cloud</li> </ol>

-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하나 이상의 퍼블릭 클라우드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결합하여 서로 다른 클라우드 환경 간에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을 공유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

✓ 기업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작동하는 방법

- 기업은 워크로드를 비즈니스 니즈에 따라 서로 다른 클라우드 환경에 분산
- 핵심 서비스를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행하여 통제력을 강화하고 환경을 필요에 맞게 원하는 대로 바꿈
- 워크로드가 가용 리소스로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면 추가 작업을 자동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하여 처리
  - ➔ 클라우드 버스팅 : 추가 용량을 온디맨드 방식으로 서비스에 제공하는 방법
- VPN과 Express Connect(P2P 전용 연결)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연결



✓ 장점

-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장점 +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
- 퍼블릭 클라우드처럼 확장성이 뛰어나고 저장 공간이 사실상 무제한이며 결제 모델이 유연하고 경제적
- 프라이빗 클라우드처럼 클라우드 리소스를 더 유연하게 사용하고 더 강력하게 통제 가능
- 보안이 매우 강력함

연관기사 링크

멀티 클라우드 복잡성으로 발생하는 '보안 취약점' 대비해야

[http://it.chosun.com/site/data/html\\_dir/2020/11/25/2020112500325.html](http://it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0/11/25/2020112500325.html)